

## 법정사 항일운동의 불교사적 의의\*

1. 김광식\*\*

### 목 차

- I. 머리말
- II. 법정사 항쟁의 개관
- III. 법정사 항쟁의 성격 및 의의
- IV. 맺음말

### I.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서귀포 중문지역에서 700여 명의 대중은 일제를 처단, 구축하려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항쟁은 서귀포시 중문지역의 법정악에 위치한 법정사에 시작되었으며, 항쟁에 참여한 대중에는 승려, 불교신자, 지역 주민(농민, 선도교도 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일제하 제주도의 항일운동을 대표하면서, 1919년 3월 1일의 3·1민족운동이 발발하기 이전의 1910년대 국내 최대의 항일투쟁의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 나아가 항쟁에 참여한 대중 66명은 일제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그중 31명에게는 실형이, 2명은 재판 이전에 고문으로 사망, 15명은 벌금형, 18명은 불기소처분되었다. 그리고 핵심 주도자들이 4~10년이라는 높은 구형량을 받았다는 점에서 3·1운동의 민족대표의 형량과 비교해 보아도 항쟁의 의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 항쟁이 법정사라는 사찰을 거점으로 전개되었으며, 법정사에 거주하는 혹은 법정사와 연고가 있는 승려가 주도세력이었다는 점에서 불교사적인 측면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불교 민족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항쟁에 대한 불교사적인 관점에서 이해, 해석은 미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이 항쟁에 관련된 자료의 부족, 이 운동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의 과도한 해석, 연구 기반의 미약 등이 어우러진 불균형적인 학문적 산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자료발굴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고, 불교적인 시각에서 법정사 항쟁을 다룬 주목할 논고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불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 발굴, 재해석되었던 것을 총체적으로 집약, 정리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최근 10여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수행된 법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5-J14601).

\*\*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

정사 항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sup>1)</sup> 역사, 지방사, 인류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왕성한 연구 성과에 힘입은 결과이다.<sup>2)</sup> 그러나 비판적인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를 개괄하면 미시적인 접근, 편향적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sup>3)</sup> 이제는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거시적, 개괄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불교사, 지방사, 민족운동사, 종교운동사 등의 관점에서 법정사 항쟁의 연구 초기 단계를 마무리하는 정리, 해설이 요청된다. 본고는 바로 이 같은 전제와 배경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힌다. 물론 추후에도 미시적인 접근, 지속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법정사 항쟁의 성역화 사업도 일단락이 되어가는 시점에서<sup>4)</sup> 총체적, 거시적인 정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법정사 항쟁을 불교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사실 규명의 기본틀인 6하원칙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법정사 항쟁에 나타나는 불교적인 측면에서의 이념, 불교사상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법정사 항쟁을 한국 근대불교사, 불교 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을 전망할 수 있는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법정사 항쟁의 개괄

### 1. 언제 : 시점, 기간

법정사의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법정사와 중문지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항쟁이 발발하기 수개월 전부터 법정사의 승려들은 운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정황을 전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다.

1) 형사사건부, 수형인 명부, 청구용 판결문, 강창규 기출옥 서류, 증언(후손, 주민) 등이다.

2) 지금까지의 법정사 항쟁에 대한 연구를 발표 순서와 함께 연구자를 고려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1995;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서귀포시』 5, 1996; \_\_\_\_\_, 『제주도 법정사 승려들의 항일무장투쟁』,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이치근,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서귀포시』 7, 1997;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1996;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김동전,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성과 항쟁지의 활용방안』, 『서귀포문화』 6, 2002; 윤봉택,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 『서귀포문화』 6, 2002;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2002;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_\_\_\_\_,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주도연구』 25, 2004; 조성운, 『무오년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주도연구』 25, 2004; 정공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32, 2005;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11, 2008;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대각사상』 9, 2006; \_\_\_\_\_,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토학연구』 10, 2007;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_\_\_\_\_, 『근대 제주불교 동향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위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세미나 자료집』, 2007.

3) 이에 대해서는 위의 줄고,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의 내용이 참고된다. 필자는 이 고찰에서 운동의 배경, 운동의 전개, 운동의 종료 및 계승, 운동의 성격 및 개념,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그간의 연구동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4) 서귀포시 주관으로 현재 부지정비, 위패 봉안소 및 부대시설, 상징탑 건립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매년 10월 초에는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문화예술제가 서귀포시 천제연광장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나(필자주, 정구용)는 1918년 음 4월부터 9월까지 법정사에 머물렀는데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자는 장임호 외 6명 등으로, 김연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관리 및 일본인을 몰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정구용 판결문』<sup>5)</sup>)

즉, 항쟁의 참여자였던 정구용은 1918년 5월부터 대일투쟁의 최고 책임자였던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로부터 항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918년 5월부터 항쟁준비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sup>6)</sup> 그리하여 항쟁의 조직체계 구성, 무기 구입 등을 다각도로 준비하였던 김연일은 1918년 9월에 접어들면서는 항쟁의 당위성과 명분, 추진방침 등을 법정사 신도들에게 공표하였던 것이다.

왜놈이 우리 조선을 병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도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확대하고 있다. 불원 佛務皇帝가 출연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사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들을 도외로 구축하여야 한다.(『고등경찰요사』)

김연일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 그 항쟁에 참가한 양남구의 신문조서에서 확인된다.

그해 음력 8월 15일 법정사에 참배한 남녀 30명쯤이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두에게 이번에 불무황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불교를 멀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옛날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불무황제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지라 우리들은 모두가 찬성했다.(『정구용 판결문』)

김연일은 자신이 주지로 있는 법정사에서 1919년 9월 19일(음, 8월 15일)에 개최된 우란분재 행사에서 대일항쟁을 선언하였다. 요컨대 1918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운동의 준비기간이었던 것이다. 항쟁을 공표한 직후 김연일 등 항쟁의 주체세력들은 더욱 치밀하게 항쟁을 준비하였다. 격문 작성, 화승총과 곤봉 준비, 깃발 제작 등의 작업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항쟁의 전위대로 활용할 대중들의 참가, 동원 문제도 검토하였을 것이다. 마침내 운동의 추진 주체들은 1918년 10월 4일(음력, 8월 그믐), 법정사 인근 마을의 이장 앞으로 보내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그는 거사일로 예정된 10월 7일(음력 9월 3일) 새벽 4시에 법정사 인근 하원리로 집결하여 서귀포지역 일제 기관을 습격하는 거사를 개시하고, 10월 8일에는 제주항으로 나아가 일제를 차단하여 구축하라는 내용의 통보였다. 10월 5일과 6일(음력 9월 2일)에는 거사의 핵심 전위세력으로 활동한 청년 33명을 법정사로 소집시켰다. 김연일은 여기에서 자신의 항쟁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절에 가니 남자 30명이 모여 있었는데 김연일은 그들을 향해 자신은 불무황제이다. 지금부터 조선 정치를 개량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수단으로 일본인 관리를 이 섬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여러분은 나의 명령에 의하여 부락 인민들에게 명을 전하고 인민들을 끌어 모아 우선 중문리의 순사주재소를 습격, 일본관리를 추방토록 하라고 명령함으로 나는(필자주, 정구용) 그에 따라 법정사로부터 내려가 각 부락으로 인민을 끌어 모으면서 중문리의 주재소로 가 그곳에 방화, 파괴토록 했는데(『정구용 판결문』)

5) 『정구용 판결문』은 1923년 6월 29일, 대구 복심법원 형사 제1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이다.

6) 다른 기록에는 음력 6, 7월 경부터 운동을 준비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의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엔 운동의 시작은 5월경부터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년 10월 5일부터 이튿날인 6일에 걸쳐 불교신자 등이 右 법정사의 집회에 모여 온종일 예불을 드리는 정례일임을 이용하여,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 전토에 불교를 퍼트리 고, 善政을 펴기 위해 義軍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쫓아내려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협력하여 원조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말을 설파하였다. 이튿날 7일 미명에 피고 김연 일, 강민수, 김용충은 동시에 머무르고 前記한 김연일의 지령의 부서에 따라 長旗를 携하고 同寺를 내려 가 鬃鬃같이 서귀포를 습격하였다(『강창규 가출옥 서류』)

이렇듯이 거사를 전개하기 전의 이틀 동안, 대일항쟁의 결의를 다진 항쟁의 전위세력들은 운명적으로 다가온 10월 7일 새벽, 중문지역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항쟁의 선봉대장인 강 창규, 박주석, 장임호와 함께 선봉에 섰던 장정 33명이었다. 이들은 중문(좌면)의 도순리, 영남리, 강정리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항쟁의 대오에 합류시켰다. 드디어 항쟁의 참가자는 수백명에 달하였다. 항쟁의 대오는 중문의 주재소를 불태우고, 주재소에 갇혀 있었던 주민 13명을 구출하고, 길가에서는 일본인을 구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쟁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제 경찰의 강력한 진압, 반격으로 항쟁의 대오는 흩어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 같은 항쟁의 개요에서 1918년 5월부터 항쟁이 준비되었으며, 9월부터는 더욱 진 전된 차원에서 항쟁의 선언, 조직 구성, 항쟁에 필요한 물자조달 등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 2. 어디에서 : 장소

여기에서는 항쟁이 ‘왜?’ 법정사와 중문지역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질문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의 제목이 법정사 항쟁이라고 하였기 에, 당연히 법정사에서 대일투쟁이 준비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쟁의 전개가 법 정사에서 시작되어 중문지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쟁의 장소가 어디였는가 라는 점은 우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이 법정사에서 어떤 연유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간단하게 설 명될 수는 없다. 이는 당시 근대 제주불교의 초기 정황, 관음사와 법정사와의 관련성, 법정 사에 있었던 승려들의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법정사에 서 항일무장항쟁이 전개되었던 연유의 배경과 성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정사의 역사에서 제주불교를 대표하는 관음사와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1908년 에 관음사를 창건한 봉려관이 법정사를 창건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도 아미산 관음사(峨眉山 觀音寺)라는 절은 봉려관(蓬慮觀)이라는 녀승이 자기 한 사람의 힘으로 창 조한 절인바, 그 뒤에 안도월(安道月)을 주지로 삼아 전도에 종사하던중, 신도의 수요가 수백명에 이루 었으므로 근자에 그 절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법당을 새로히 짓기로 하였고 또 이왕에는 법정산 법동사(法井山 法洞寺)라는 절도 건설하였다.<sup>8)</sup>

즉 관음사를 창건한 봉려관은 안도월을 주지로 삼으면서 불교의 포교에 진력하자, 관음사는 성장하여 사찰을 확장케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법정사가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즉 법정사는 관음사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관음사와 법정사의 창건 및 운 영은 봉려관 개인의 노력만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 전후사정은 아래의 기록에서 찾

7) 이 자료는 1928년 12월 12일 목포 형무소에서 생산된 것인데, 제주불교사연구회의 한금순이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한금 순 논문에서 나온 것과 한금순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8) 『매일신보』 1918.3.2, 「제주도 아미산 봉려관의 기적, 꿈갓흔 기괴한 이야기」.

을 수 있다.

이 관음사는 봉려관이라는 비구니가 창건하였는데 ... 이때 문득 한 노스님이 나타나 「저 산천단으로 내려가거라」 하므로 다시 발심해서 산천단으로 내려왔다.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상한 스님이 계셨는데,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 하시며 가사(袈裟) 한 벌을 내어 주었다. 다시 다음해(1909)에 마을에서 구제(鳩財)하여 초암(草庵) 여러 칸을 지었다. 또 다시 다음해(1910)에 영봉(靈峰) 화상과 안도월(安道月) 처사 등이 바다를 건너 제주에 들어오면서 용화사(龍華寺)의 불상과 각 탕화 등을 모시고 와서 반가이 맞이하여 봉안하였다. 다음해(1911) 9월에 법정암(法井庵)을 창건하였다. 그리하였으나 도민은 계속 내쫓으려 하였는데, 다음해(1912) 4월에 돌을 던지는 폭행에도 상처가 없는 기적으로 인하여 드디어 복종하게 되니, 여기서 관음사를 이룩하게 된 것이라 함이 이 절의 창건 삼화이다.<sup>9)</sup>

공(필자주, 김석윤)은 본디 세상을 초탈하는 불교를 좋아하였다. 대구에서 돌아온 후 여승 봉려관과 함께 색수수(塞水蘂, 새미털)에 불사(佛舍)를 창건하였다. 남주(南州)의 사찰들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또 법정(法井)에 도량을 세웠는데, 모두 시사(施舍)가 있었다.<sup>10)</sup>

위의 글에 나타나듯이, 봉려관의 사업에는 雲大師, 영봉, 안도월 등이 관여하였다. 제주 근대불교의 초기 상황을 연구한 오성은 운대사를 김석윤으로 비정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영봉과 안도월은 김석윤이 통영 용화사에서 알게 된 승려로, 김석윤의 소개 및 추천으로 제주도로 건너와 관음사에 머물게 되었다. 이중 안도월은 관음사 초대 주지 소임을 맡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석윤은 1909년 관음사 서무를 보다가, 1911년에는 관음사 해월학원<sup>12)</sup> 교사를 역임하였다.<sup>13)</sup> 김석윤은 해월학원 교사로 활동하면서, 산남 법정암에 있었던 법정사를 1911년에 창건하는데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sup>14)</sup> 여기에서 법정사의 창건, 운영, 성격 등에 김석윤이라는 승려가 관련됨을 주목할 수 있다. 오성은 김석윤이 법정사를 창건하였다고 보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정적인 문헌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사에 김석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은 수용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서 김석윤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할 필요가 요청된다.

김석윤은 1877년 제주도 오라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유년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과 불경을 배우다, 불법에 심취하여 1894년 그의 나이 18세 때에 전주 위봉사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불교를 배우다가, 대흥사에서 교학을 배웠다. 그런데 그는 1898년 제주도로 귀향하여 광양서재에서 교사로 활동할 때에 방성칠난(1898)과 이재수난(1901)을 목격하였다. 그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반봉건, 반외세 투쟁을 지켜보고서는 통영 용화사로 떠나 불교를 더욱 공부하였다. 마침내 그는 국권이 상실되어가는 지경을 참지 못하고 1909년 제주에서 제주의병을 일으켰다. 이 의병항쟁에는 기우만, 기삼연, 고상훈 등과 상의한 김석윤이 개입되었는데, 격문까지 작성되어 전 제주지역에 발송되었다. 이 같은 제주의병은 국권수호를 위해 제주민들이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쟁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의병은 일

9) 이은상, 「두륜산인관음사사적기」, 『탐라기행』, 1937.

10) 김석익, 「亡兄石檀道人行錄」(1937),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11) 오성, 앞의 논문, 2007, 9쪽 참조.

12) 관음사가 해월학원을 왜 건립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점은 추후 탐구할 내용이다.

13)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2002, 215쪽.

14) 오성은 김석윤이 “법정사를 창건하게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성격은 기술하지 않았다. 즉 창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에게 간과당해 거사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 갔다. 그 결과 김석윤은 내란죄로 기소되어 10년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석윤은 제주 유지들의 노력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었다.<sup>15)</sup> 풀려난 김석윤은 통영 용화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영봉, 안도월과 함께 1910년에는 제주도로 건너와 관음사에 머물렀다.

바로 이때 김석윤은 관음사 서무를 보면서 관음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관음사 해월학원의 교사를 역임하면서 법정사 창건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김석윤 그는 왜 관음사 서무를 지속적으로 보지 않고, 해월학원 교사로 갔으며, 결과적으로 관음사를 떠났는가? 그에 대한 문헌적인 자료는 없지만 필자가 추정하건대, 김석윤과 봉려관 사이에 이질성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즉 김석윤은 민족의식,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었다면 봉려관은 순수한 불교발전 및 진흥에 유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김석윤은 관음사를 떠나 관음사가 연관되는 해월학원으로<sup>16)</sup> 활동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석윤이 관음사 서무를 볼 때, 관음사에는 김석윤의 도반이면서 사형사제 관계였던 강창규도 머물러 있었다. 강창규는 김석윤과 같이 제주 오라리 출신으로 1892년 전주 죽림사에서 출가하고, 1893년에는 김석윤의 은사인 박만하에게 수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하동 칠불암에서 참선 수행, 건봉사에서 강원교육을 마치고 제주도로 귀향하였다.<sup>17)</sup> 제주도에서는 관음사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김석윤과 함께 관음사에 머물렀다.<sup>18)</sup>

한편 강창규가 관음사에 머물 무렵, 관음사 전각 공사에 참여한 대상자로 처사 방동화가 있었다. 그는 제주 중문면 대포리 출신으로 법정사 창건에 관여하였는데, 그 이후 관음사에 와서도 처사로 관음사 불사에 참여하였다.<sup>19)</sup> 그가 법정사와 관음사의 불사에 참여한 것은 하원의 한 문사숙에서 한문과 불교를 김석윤에게 배운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음사에서 일을 하는 중 강창규에게 영향을 받아 1913년 기림사에서 출가하였다. 방동화가 기림사로 가게 된 것은 강창규, 김석윤의 은사인 박만하가 당시에는 기림사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0)</sup> 방동화는 대승사로 가서 강원교육을 받고서는 제주도로 귀향하였다.<sup>21)</sup> 그런데 방동화는 기림사에 머물 때에 기림사에 있었던 김연일의 사상 및 인품에 매료되었다.<sup>22)</sup> 이에 방동화는 김연일이 제주도 관음사에서 대중강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 배려하였다. 김연일의 관음사를 비롯한 제주도에서의 대중강연은 큰 반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23)</sup> 이에 관음사의 강창규는 김연일이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제주도에서 불법 전파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sup>24)</sup> 강창규의 제안을 받은 김연일은 제주도에 머물게되었던 것이다.<sup>25)</sup>

15) 이 내용은 앞의 오성의 논문을 참조한 것임.

16) 해월학원에 대한 개요, 성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17)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2002, 230~231쪽.

18) 그런데 그가 관음사에 온 시점, 떠난 시점 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단정을 못한다.

19) 그의 자제인 방진주의 증언이다.

20) 방동화의 승적부에 의하면 그의 은사 및 사미계사는 이도하, 비구계사가 박만하로 나온다.

21) 방동화의 귀향시점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그의 승적부에 전하는 수학 내용에는 그는 대승사 강원에서 1913년 5월부터 1920년까지 사미과, 초등과, 중등과, 수의과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졸업한 시점은 법정사 항쟁의 참여, 도피, 구속이라는 정황에서 볼 때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금순은 그의 제주도 귀향 시점을 1914년으로 보았다. 이는 김연일과 함께 왔을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된다.

22) 그는 당시 한소식을 하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불법에 정통하였고, 법문에 능하였다고 한다. 방진주 증언.

23) 방진주의 증언.

24) 그래서 강창규는 자신의 딸을 김연일의 부인으로 삼게 하였다고, 방동화의 자제인 방진주는 증언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1913년 후반<sup>26)</sup> 관음사에는 강창규, 김연일이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지만 관음사의 창건주인 봉려관은 불교의 포교에는 관심이 지대하였지만 항일의식, 민족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고 이해된다.<sup>27)</sup> 이에 관음사의 중심인물인 봉려관과 관음사의 외부에서 유입된 강창규, 김연일과는 체질적으로 동화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연일이 대중강연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동학농민운동 및 의병운동의 경험이 있었던 점을<sup>28)</sup>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법정사 항쟁을 연구하였던 임혜봉이 1994년 무렵 법정사에 주석하였던 비구니 법의에게 들은 정황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법정사에 주석하고 있는 법의(法義) 비구니의 증언에 의하면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스님은 형제의 의(義)를 맺은 돈독한 사이였다고 한다. 김연일을 비롯한 영일군 출신의 스님들과 방동화 스님은 경주 기림사에서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었다. 방동화 스님은 1913년 기림사에서 우전 도하(字典 度河) 스님을 은사(恩師)로 득도한 후 1918년 봄 제주도로 돌아와 법정사의 김연일 스님 일행에 합류하였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스님의 나이가 당시 각각 48세, 40세, 32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결의형제하고 김연일의 지도에 의해 항일결사를 조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제주도 관음사 인근 산천단(山川壇)에서 결사를 하였으나 보안유지를 위해 산간벽지에 자리잡은 제주도 좌면 도순리에 있는 법정사로 들어가 항일거사 성취를 위한 백일기도를 했다고 한다.<sup>29)</sup>

이러한 비구니(법의)의 증언을 정리한 임혜봉의 서술은 지금껏 필자가 서술한 대강의 흐름에 부합된다. 관음사에 머물던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는<sup>30)</sup> 1913년 후반 관음사 인근 한라산 정상 근처의 산천단에서 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결사 내용은 단정할 수는 없다. 불법을 위한 다짐, 국권회복을 위한 맹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결의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깊숙한 산간벽지에 있었던 법정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음사에서 법정사로 가게 된 연유를 단순히 '보안유지'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관음사와 법정사와의 이질적인 문화, 정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법의 천양외식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이 충만하였던 김연일, 강창규 일행과 봉려관, 안도월 일행과는 상호 거북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김연일, 강창규의 뒤에는 항일의병 활동을 주도하였던 김석윤이 일체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현실이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논리하에서 역측을 더욱 해 본다면 김연일, 강창규는 김석윤의 개입하에 법정사로 이주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법정사 창건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김석윤이었기에, 김연일 일행의 법정사 이전, 김연일의 법정사 주지 취임도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던 것으로<sup>31)</sup>

25) 그런데 김연일은 그 무렵에는 주로 관음사 제주포교당 성격을 갖고 곳(현재 제주은행 자리)에 머물며 포교활동을 하였다. 당시로서는 관음사가 오지이었기에 일반 대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제주읍내에 머문 것이다. 이상은 방진주 증언에 의지한 설명이다.

26) 이는 필자의 추정이다. 그 시점을 법정사 항쟁의 시작과 관련하여 1918년 초로 볼 수 있지만, 김연일이 관음사에서 법정사로 이전한 내용을 고려하여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 그 시점을 1914년으로도 볼 여지는 있다.

27) 이는 그가 법정사 항쟁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관여되었다는 기록, 증언이 부재한 것에서 그렇게 이해하였다. 봉려관은 제주 화북 출신으로 집안의 재정이 넉넉하였으나, 심신이 건강치 못한 것(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기도를 하다가, 출가하였다고 한다(방진주 증언). 이는 봉려관의 출가 동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체질은 자연 민족의식, 민족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8) 김연일의 손자 김갑출의 증언.

29) 임혜봉, 앞의 책 참조.

30) 방동화는 그 무렵 대승사 강원에서 수학하였지만, 방학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자 한다. 김연일이 법정사 주지에 취임하자, 과거 그가 기림사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승려, 불교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법정사로 옮겨 오게 되었다. 김연일이 법정사에 머물기 시작하던 1914년에 박만하가 관음사 주지로 활동하였음도 이 같은 구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sup>32)</sup>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법정사 항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914년부터 법정사에는 김연일, 강창규 일행이 머물게 되었다. 이들의 공동 주석은 불법의 공포와 민족의식의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법정사 성격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정사의 정체성은 방성칠난, 이재수난, 제주의병 등에서 표출된 반봉건, 반제국주의 이념이 법정사라는 사찰의 공간에서 이식,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주민의 민족의식뿐만 아니라 김연일로 상징되는 국내의 민족의식도 부가되는 정황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같은 정서, 배경, 이념이 법정사 항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법정사에 충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치열한 항일무장투쟁이 법정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사 인근의 지역은 화전민들이 집단적으로 생존을 유지하였던 지역이었고, 남학이라는 신흥종교를 통해서 후천개벽을 강조하는 사상적 세례를 경험한 농민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을<sup>33)</sup>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지역 정서와 법정사의 정체성이 결합하여 대격변 발생의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법정사 일대에서는 항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였던 것이다.

### 3. 누가: 주체 및 참여자

법정사 항일투쟁에 누가 참여하였는가를 조명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초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서두에서도 밝혔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누차 강조되었던 내용이다. 때문에 약간은 진부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라 굳이 조명할 연유가 없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항쟁의 성격, 주체를 밝히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승려, 불교신도, 지역주민(농민, 선도교도)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운동의 성격이 일제하 및 연구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는 보천교도의 란으로 소묘되었던 저간의 상황과 이런 연구 경향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연구로 인해 이 주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지역주민은 농민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농민들의 종교적 성향이 불교도인가, 보천교도(선도교도)인가, 아니면 종교성과 무관한 순수한 농민이었는가이다.

이런 정황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당시 상황을 전하는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그 본질에 다가가도록 하겠다.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쪽 기슭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일찍부터 제국 정부의 조선 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력 6, 7월 경부터 수명의 同志와 의논하여 佛敎徒 및 農民을 모아 작당을 하고 폭행, 위협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일 것을 꾀해, 그 절에 모여드는 信徒들에게 그 취지를 전달, 가담토록 하던 바(「정구용 판결문」)

31) 제주도 출신이 아닌, 외지인을 주지에 취임하도록 할 수 있음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김석윤의 강한 영향력이 작용하였던 점으로 보여진다.

32) 박만하의 관음사 조사전에 창건주인 봉려관, 초대 주지인 안도월과 함께 봉안되었다.

33) 조성윤, 앞의 논문, 2002, 29쪽.



일제가 작성한 이 판결문에는 항쟁의 최고책임자인 김연일이 주도한 무장투쟁에 동조한 대상자들이 불교도 및 농민이라고 명쾌하게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불교도라면 승려와 재가신도를 말하는 것이다. 재가신도임은 위의 판결문에서도 법정사에 모여드는 신도라고 나왔기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참가한 지역주민 700여 명(혹은 400여 명) 전체가 불교신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중에는 불교신도도 있었겠지만, 무교 혹은 기타 종교를 신봉하는 대상자도 있을 것이다. 기타 종교에는 이른바 선도교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에서 운동의 주체세력의 이해를 운동 참가자들의 성향(역할, 참가동기, 일제에 피체 및 구형량)에 의거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가 있다.<sup>34)</sup> 그 개요를 요약하자면 참가자를 주동세력, 동참세력, 참가세력, 단순참가자 등으로 구분했다.

주동세력은 법정사 항쟁의 모의, 준비, 주도적인 진행을 주체적으로 담당한 대상자로 보았다. 동참세력은 이 운동의 초기의 기획단계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운동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동참하고 운동의 전개에 깊숙이 관여한 대상자로 보았다. 참가세력은 운동의 초기의 모의 및 준비단계에는 관여되지 않았지만 운동이 전개되었던 초기 과정에 적극 참여한<sup>35)</sup> 당사자들을 지칭한다. 그밖에 단순가담자는 항쟁의 전개 시(10월 7일)에 일제 타도라는 목적에 부응한 일반 대중들과 강제적 권유에 의해 혹은 마지 못하여 참가한 대상자를 말한다. 이러한 주동, 동참, 적극가담자,<sup>36)</sup> 단순가담자라는 구분은 운동의 시간적인 흐름에서도 구별된다. 필자가 이해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주동세력 ; 김연일(법정사주지, 총지휘), 강창규(선봉대장, 승려), 방동화(좌대장, 승려), 강민수(우대장, 법정사승려), 정구용(격문작성, 법정사승려), 장임호(모사, 법정사거주), 양남구(중군대장, 불교신도), 김상만(후군대장, 법정사거주), 이종창(선봉좌익장), 최태유(선봉집사, 승려), 김봉화(선봉집사, 승려),<sup>38)</sup> 김용충(법정사 거주), 김인수(법정사 거주, 항쟁후 출가)<sup>39)</sup>

동참세력 ; 박주석(모사, 선도교 수령, 박처사), 선봉대원 33명,<sup>40)</sup> 선도교도(강봉환, 김무석, 조계성 등)<sup>41)</sup>  
 적극가담자 ; 촌락에서 적극 참여한 대상자(불교신도 및 농민)  
 단순가담자 ; 일반 주민, 지역 농민, 화전민 등 수백여 명

34) 줄고,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19~29쪽.

35)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한 불교신도, 농민 등이라고 볼 수 있다.

36) 필자는 예전 논고에서는 참가세력이라고 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단순가담자와 대비하여 적극가담자로 표현을 바꾸었다.

37) 필자의 의견과 한금순이 제시한 법정사 항일운동 조직도를 참고하였다. 한금순, 앞의 논문, 2006, 317쪽.

38) 김봉화는 승려로, 취조중 옥사하였는데, 김명돈(승려)의 동생이란 점은 박찬식이 그의 연구 논문에서 밝혔다. 그렇지만 박찬식은 김봉화, 김명돈의 연고 사찰을 언급치 않았다.

39) 강민수, 정구용, 김용충, 김인수 등 4명은 경북 영일군 출신으로 김연일이 1914년 제주도로 들어올 때에 함께 온 대상자들이다.

40) 한금순은 그 대상자로 김명돈, 김상언, 조계성, 김무석, 김기수, 오병윤, 이승빈, 고용석, 김두삼, 문남규, 문남은, 최신일, 이달생, 김성수, 이윤평 등 15명을 제시하였다. 위의 한금순 자료, 그리고 선봉대원을 34명으로 칭하는 기록도 있다. 한편 선봉대원 33명에는 주도세력과 겹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대상자는 김상언이다. 그는 정역 6년을 구형받은 당사자로서 항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승려로 추정되지만, 현재 그의 연고사찰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소략하다. 임혜봉은 그를 제주도 출신 승려로 보았다.

41) 김창민은 법정사 항쟁을 불교와 선도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중문지역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항일운동이라고 보았다. 김창민, 앞의 논문(2004)의 맺음말 참조. 이는 불교와 선도교를 대등하게 본 것인데, 이는 필자가 불교는 주체, 선도교는 합류(동참)하였다고 이해한 불교 중심적인 시각과는 일정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별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다. 우선 주동세력은 법정사에 거주하는 승려 및 불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동세력의 일부 대상자는 법정사에 거주하지 않았던 승려와 불교도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주동세력은 대부분 항쟁의 최고 책임자인 김연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음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즉 김연일의 출신지인 경북 영일, 기림사 등지에서 김연일과 함께 제주도로 건너와서 법정사의 불교 활동에 관여한 대상자이다. 때문에 이들은 김연일의 항일 투쟁에 자연스럽게 참여한 것이라 하겠다. 항쟁 당시 법정사에 장기간 머물지 않은 강창규와 방동화는 1914년부터 깊은 연고를 갖고, 김연일이 법정사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항쟁에 주도자로 참가한 것은 당연한 행보이다.<sup>42)</sup> 그밖에 일부 불교신도와 주석 사찰이 밝혀지지 않은 승려도<sup>43)</sup> 있는데, 이들은 김연일의 항일의지에 동조한 결과로 참여한 것이다.<sup>44)</sup>

다음은 동참세력의 문제이다. 이 분야가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이 있다. 우선 선봉대원 33명은 동참세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그 전체 33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문헌에 근거해서는 알 수가 없다.<sup>45)</sup> 추정하건대 이 명단에는 전술한 동참세력의 일부 대상자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동세력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는 당연히 동참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선에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박주석(박명수)과 선도교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껏 법정사 항쟁에는 어떠한 형태로 선도교도가 참여하였음은 일부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sup>46)</sup>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의 중심에 선도교 수령으로 나오는 박주석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최근 새롭게 발굴한 자료와 증언에는 그가 불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즉 박주석은 수형인 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이명이 ‘處士’로 나온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항쟁의 이전과 항쟁 당시, 그리고 항쟁 이후에도 박주석을 박처사로 불렀다는 것이다.<sup>47)</sup> 그렇다면 박처사가 우선하는 이름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추후에는 박주석을 박처사로 지칭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42) 방동화는 항쟁이 일어나기 100일 전부터 법정사에서 제석기도를 올렸는데, 이는 승려 및 불교신도를 규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방진주 증언.

43) 한금순은 최태유를 옥지에서 내려왔고, 강창규와 위봉사에서 인연으로 제주도로 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마 이점으로 항쟁에 강창규와 함께 참여하였을 것이다. 김봉화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실정이 아니다.

44) 법정사 항쟁 기념사업회의 유족들은 1994년 이 운동을 새롭게 조명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에서 운동의 주도자가 김연일이며 12명의 승려가 주동되어 많은 佛徒가 참여하였다고 강조했다. 방진주는 그 33명 전부를 승려라고 주장한다. 이는 방동화에게서 들은 정황인바, 이로써 승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불교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한편 임혜봉은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82쪽에서 승려를 13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 대상자를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김봉화, 김상언, 장립로, 김상만,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강민수, 강수오, 최문수 등을 그렇게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는 불교도임은 분명하지만 전원이 승려이지는 않았다. 항쟁 후 출가한 경우도 있었다.

45) 김연일의 손자인 김갑출은 김연일 유품 중에 서명포에 33명의 이름이 서명된 사발통문 형식의 천이 있었으나 분실하였다고 한다.

46) 그러나 오성, 한금순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금순은 박주석을 기존 선도교 수령에서 불교적인 인물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지만, 박주석을 제외한 여타 보천교도의 대상자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석을 피하였다. 그리고 법정사 항쟁 유족회의 청원서에서는 박주석만 보천교도라는 이해를 하였다.

47) 박주석의 외손자인 이태수는 박주석이 금강산 사찰에서 불법과 병법을 배워, 그를 의병진에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1950년대 후반 중문, 한림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중에서 박주석을 아는 사람들이 박주석을 박처사로 기억하는 증언을 청취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제주불교』, 2005.3.4, 「제주 항일운동 주역은 불교인」). 이는 당시 사람들이 박주석을 박처사라고 불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의 본명은 박주석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를 박처사로 불렀기에 그 호칭이 최우선적인 이름으로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박주석의 종교성 논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일단은 문헌사료(선도교수령)를 충실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 해석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에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박주석은 제주도로 건너오기 이전에는 불교적인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는 그를 달리 표현한 이명인 ‘朴處士’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교적인 내용에서 나온 것이다.<sup>48)</sup> 최근 박주석의 외손자인 이태수를 면담한 한금순은 이태수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박주석의 불교적인 인물임을 확고하게 강조하였다.<sup>49)</sup>

외할아버지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열네 살에 진주로 양자를 갔다. 그런데 양자든 집에서 재산 때문에 양어머니와 양 누나가 학대를 했다. 견디다 못해서 밤에 집을 나섰다. 수십리 길을 가다가 금강산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할아버지 범명이 명(明자) 수(洙)자이다. (...) 할아버지의 이명인 명수는 범명이다. 어머니가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면서 삼수, 삼봉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명수하고 태수하고 삼수 중 둘이다. 어머니는 문태수 청년이 할아버지 제자라고 했다. 문태수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며칠간 밤도 안드시고 눈물 흘리면서 누워 계셨다고 한다. 내가 찾아 보니까 문태수 청년은 호남 의병대장 문태수이다. 문태수는 1904년에 금강산 박처사에게 병서를 받았다. 문태수는 원래 이름이 태서이다. 의병 활동을 하면서 태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박처사는 공훈록에 안동에서 의병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 할아버지의 이명 박처사가 바로 문태수 장군에게 병서를 건네 준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한 이분이라고 생각한다.

박주석 외손자, 이태수의 증언은<sup>50)</sup> 기존 박주석에 대한 이해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태수의 증언, 그를 소개하여 해석한 한금순의 해석을 신뢰한다.<sup>51)</sup> 이런 이력이 있었기에 김연일은 제주도로 건너와 있었던 박주석에게 항쟁에 대한 자문을 하고, 박주석에게 항쟁의 실질적인 추진을 맡겼던 것이라 하겠다. 이 정황은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이 된다.

내가(필자주, 박주석) 다른 피고 등과 함께 제주도 좌면 중문리 주재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한 사실은 틀림이 없으며 1918년 음 6월 말께 피고 방동선이 자택에 와서 법정사에 와 달라고 함으로 음 8월 4일 그 절에 가자 거기엔 피고 김연일, 강민수, 장임호, 김용충, 김인수 등이 함께 있어 그들로부터 이번 폭동의 상담을 받았다. 법정사에서 앞의 각 피고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김연일은 내게 대해, 자기는 김해김씨의 후예이며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전부를 몰아내고 이어 육지에 나가 불교를 넓히고 싶은 바

48) 처사는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일하는 남자, 혹은 사찰에 출입하는 재가의 불교 지식인을 지칭한다. 필자가 연구한 고려중기 운문사에서 일어난 난 즉 김사미난의 주모자는 김사미였다. 김사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사찰, 불교와 연관이 된 호칭이다. 沙彌는 정식 승려가 아닌 대상인데, 그중 20~50세 경의 남자가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사찰 일을 보는(소작농민, 사찰 청소, 사찰 재산 수호 등) 대상자를 칭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름만의 사미라고 하여 名字沙彌라고 한다. 요컨대 박처사는 김사미의 경우와 동질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운문사와 김사미란』, 『한국학보』 54, 1989 참조. 이 논고는 줄저, 『고려무인정권과 불교계』(민족사, 1995)에 수록하였다.

49) 이는 한금순이 그의 논문(2008) 451~453쪽에서 소개한 그 진술을 재인용한 것이다.

50) 시흥에 거주하는 강창규의 외손(2005년 현재 69세)은 『제주불교』와의 인터뷰에서 외할아버지인 박주석은 선도교와 전현 상관없고, 14세 때 금강산 사찰로 스님을 따라 들어간 후 불법과 병법을 배웠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금강산 사찰에서 수학한 후 의병항쟁에 뛰어 들어 활동하면서 박처사라고 불렀다는 증언을 외할아버지가 활동하던 안동, 진주에서 확보하였으며, 호남의병장인 문태수(본명, 태현)가 외할아버지로부터 태수라는 범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50년대 후반 중문과 한림읍 금악 등지에서 외할아버지(박주석)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일관되게 박처사로 기억하는 증언을 청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은 『제주불교』 2005.3.4, 『제주 항일운동 주역은 불교인, 법정사 항쟁 박주석 절에서 수학, ‘박처사’ 증언 나와』의 보도를 요약한 것이다.

51) 한금순은 전북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전북의병사』 하권의 문태서 의병대에서 1904년 2월 문태서(문태수)는 금강산에 은거하고 있었던 박처사를 찾아가 유격술, 총포 사격술을 배웠다는 내용을 그 보강 자료로 삼았다.

그 수행에 조력해 달라고 말했다. 법정사를 출발함에 즈음해서는 김연일 등과 함께 의논한 후에 우선 서귀포 중문리를 습격하고 제주성내로 나가기로 하여 그 연도의 각 구장 등으로부터 민적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각 마을의 장정을 징발, 그 세력을 증대시켜 일본인 관리를 도외로 추방할 계획을 세웠다.〔정구용 판결문〕

위의 「정구용 판결문」에서 나오듯 그는 법정사에 초청을 받아가서, 항쟁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을 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투쟁에 기꺼히 참여하여 항쟁의 전개를 김연일과 함께 상의하고, 항쟁의 일선에 서서 진두지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는 법정사 항쟁의 주체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성은 그가 제주도에 오기 이전의 충만한 민족의식, 의병항쟁의 경험이 충분함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는 그의 외손자의 증언을 신뢰시킬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항쟁 당시에 박주석이 선도교 수령이였는가 하는 점이다. 아니면 그를 전한 『고등경찰요사』가 편찬될 즈음의 상황인가이다. 법정사 항쟁을 묘사한 『고등경찰요사』의 내용에서 김연일이 항쟁 4년 전부터 일제를 몰아내라고 발언하였다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1934년에 간행된 『고등경찰요사』에서 김연일과 박주석이 결합한 요인을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자.

原因은 선도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엄중함으로부터 김연일은 사전에 친교가 있는 同地 선도교 수령 박명수와 미리 짜고 일을 꾸미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는 당시 박명수 즉 박주석은 선도교 수령이었고,<sup>52)</sup> 항쟁 이전에 김연일과 ‘친교’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온다. 그러나 친교의 내용이나 성격은 단언키 어렵다. 추정하건대 김연일이 선도교에 대한 일정한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sup>53)</sup> 당시 선도교가 일제로부터 집회에 대한 단속이 엄중함을 파악하고, 선도교측 인물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항쟁에 활용키 위한 목적에서 박주석을 항쟁에 끌어 들인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자면 박주석은 운동의 기획 후반부인 1918년 9월경에<sup>54)</sup> 동참하였다. 즉 항쟁의 준비가 진행되었던 막바지 무렵에 동참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주석은 육지에 있을 적에는 처사였고, 불교적인 인물이 분명하였지만 제주도로 온<sup>55)</sup> 이후, 1918년 당시에는 선도교도로 전환되었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sup>56)</sup> 이런 입장에서 박주석 이외에도 수 명의<sup>57)</sup> 선도교도가 항쟁의 동참세력의 일원으로 나왔던 것으로

52) 수형인 명부에 그는 ‘無職’으로 기재되었다. 법정사에 거주하는 승려 및 불교도들도 무직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그도 단순한 농민은 아닌 것으로 일제가 본 산물이다. 그러나 항쟁 직후의 문건인 형사사건부에는 그도 농민으로 기재되었다. 이는 항쟁 직후에는 농민으로 기재하였지만, 항쟁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의 문건(1901~1944년 수형인 명부)에 무직으로 기재되었음은 그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53) 이 점은 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에 첨부된 제1심 판결문(19192.4)에서도 나온다. 즉 “그는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근래에 선도교 교지를 믿었는데, 경찰의 선도교 단속에 불만을 품고”云云이다. 한글순, 앞의 논문, 2006, 313쪽 참조.

54) 음력으로는 8월 4일에 법정사에 가서, 항쟁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항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55) 그 시점은 알 수 없다.

56) 그 전환도 외적으로는 선도교이지만, 내적으로는 불교적인 가치관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외손자 강력하게 선도교의 성격을 부인하고, 불교적인 인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57) 현재는 3~4명 정도이지만, 기록과 증언이 부재하여 더 이상은 단언하지 못한다. 안후상은 앞의 논문, 1996, 169쪽에서 구속, 수감되지는 않았던 보친교도인 강상백을 소개하였다. 즉, 강상백이 배후에서 사건을 주도한 것이 그의 비문에 나온다고 소개하였다.

본다. 김창민이 현지 하원마을에 대한 현지 연구를 통해 항쟁에 선도교도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이라는 요지의 논고를<sup>58)</sup> 발표한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김연일과 박주석의 결합은 단순히 박주석의 개인투쟁 경험을 빌리는 정도이면서도, 일체에 휩박을 받는 선도교도를 항쟁에 유입시키려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닌가<sup>59)</sup> 한다. 더욱이 승려이면서 선도교에 관심을 갖았던 김연일과 불교적 가치관을 갖았던 처사이었지만 선도교도가 되었던 박주석 간에는 사상적, 민족의식 차원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많았기에, 이들의 공동적인 대일항쟁의 전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제주도에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있어 왔던 선도교(보천교)에 대한 인식을 법정사 항쟁에 직접 연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1930년대의 보천교 행적과 법정사 항쟁기의 선도교와는 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사 항쟁기의 선도교는 민족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을 표방한<sup>60)</sup> 성격이 내재되었다는 것이다.<sup>61)</sup> 이런 성격이 있었기에 김연일도 선도교에 관심을 가졌고, 육지에서는 불교적 노선을 갔던 박주석(박처사)도 선도교를 수용하여 사상적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김연일과 박주석의 결합을 집단적 연결로 보기에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선도교의 합류는 사실이지만, 그는 불교의 주체적인 주도하에 선도교도가 동참하는 정도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는 주체세력의 분포, 거사 진행의 장소, 거사를 선언하였던 정황, 거사를 선언하였던 당일에 참가한 대상자들을 일체가 불교신도들이라고 기록한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 만약 조직적, 집단적 연결이었다면 선도교 참여, 활동에 대한 정황, 기록은 지금보다 더욱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에 대해서는 선도교도의 참가 부인,<sup>62)</sup> 혹은 선도교도의 역할 및 참여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볼 수는 없었다는 논점<sup>63)</sup> 있었다. 여기에서 선도교(보천교)의 개입을 보여주는 일제측 기록과 후대의 기록인 『동광』의 내용을 살펴보자.

차경석은 김형렬에 맞서 선도교라는 교파를 만들고 각지에 전해져서 신도확장에만 중사했다. 대정 7년,

---

최근 김창민은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에서 하원 지역은 항일운동 당시 선도교세가 매우 컸다고 언급하면서, 마을에서 행세하는 사람은 대부분 선도교도라고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주장했다. 그들은 양풍과 왜색에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월평 마을에서도 유력한 인사들이 선도교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는 월평 마을의 주민이었던 김봉록, 강성진, 김봉인 등은 열렬한 선도교도로서 법정사 항쟁에도 적극 가담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기술은 선도교도에 대한 우호성, 민족의식 집단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58) 위의 김창민 논고. 그러나 그는 이 항쟁을 선도교의 항일운동이라는 성격 규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도교도가 많은 참여를 한 것은 외세와 일제에 저항하는 선도교의 메시지에 호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9) 박찬식은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에서(85쪽) 불교와 선도교 양 집단의 연결로 이해하였다. 지금껏 박찬식, 조성운, 김정인, 안후상 등은 선도교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해가 갈릴 정도로 그에 대한 천착은 하지 않았다.

60) 유불선을 종합한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말한다.

61) 김홍철, 「일제하 증산교단의 수난과 그 대응」,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 증산종단연합회, 1997, 165쪽. 증산교, 보천교의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노길명, 「일제하 증산교운동」, 『승산 박길진박사 교회기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1984; 「초기 증산종단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 증산종단연합회, 1997 참조.

62) 한금순은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선도교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분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있다고 보았다.

63) 이는 그간의 필자의 견해이었다.

국권회복의 미명 아래 차경석 및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 등이 서로 모의해 동년 9월 19일, 우관분회에 즈음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을 소집 “倭奴는 우리 조선을 병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해 酷遇시켜,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 민족의 仇敵되어, 머지 않아 제주도 내 거주하는 관리를 완전히 살해한 후 상인을 驅逐시켜야 한다”며 설득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김연일은 그 配下를 도내 각지에 보내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고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결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을 협의해 대오를 정리한 후, 부근 각면, 이장에게 일본 관리를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다시 장정을 거느리고 참가하라, 따르기를 꺼리는 자는 군율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는 의미의 격문을 배포하고, 6일 밤부터 제주 성 내로 향해 행동을 개시하였다. 도중에 전선을 절단하고 또 내지인 의사 외 조선인 2명을 부상시키고, 다음날 7일, 중문리에 도착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 전소시켰다. 이어 폭도 38명을 검거할 수 있었고 차경석, 김연일 등 간부는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인 수만원을 가지고 그 소재를 감추니,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다.(1918년 11월 27일, 경무국 고등경찰 비밀문서, 제36610호 「태을교도 검거에 관한 건」)<sup>64)</sup>

제주도는 원래가 邪敎가 많은 곳으로 대정 2년 경부터 강증산을 교조로 한 보천교, 미륵교, 동화교, 대세교와 최제우를 교조로 한 동학계의 수운교 등이 들어와서, 대정 8년에 김연일이란 자가 그들 사교도를 규합하여 가지고 자칭 불무○○(佛武○○)라 하는 제주도 대정면 산방산(濟州道 大靜面 山房山)에서 ○○식(○○式)을 거행한 후, 약 3백명의 민중을 선동하여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불을 질러 태워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들 사교도는 여전히 불온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으로<sup>65)</sup>

이 두 기록은 위에서 필자가 운동의 개요를 정리한 것과 그 내용이 흡사하다. 다만 박주석 대신에 선도교 최고책임자인 차경석이 등장한 것 뿐이다. 박주석을 비롯한 선도교도의 행위를 차경석으로 등치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서는 항쟁의 주도, 전개는 어디까지나 김연일이었음이 분명하게 나온다. 이를 미루어 보면 필자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법정사와 김연일의 주제, 주도하에 항쟁은 전개되었고 박주석과 선도교도는 동참하는 선에서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도교도 참여하였지만 그는 김연일에게 ‘규합’된 것으로 보아야<sup>66)</sup>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는 선도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거니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문헌에 근거하여 보자는 실사구시적인 입장임을 밝힌다. 선도교도가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불교도인 주제세력이 기획, 전개하는 항쟁에 미약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선도교도에 의심을 두고 조사를 하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sup>67)</sup> 만약 조직적으로, 주제세력으로, 많은 선도교도가 참

64)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 총서, 조선독립운동 제1권(민족주의운동 편) 분책』1967, 247쪽.

65) 『조광』(1938.10), 185쪽. 『매일신보』 1938.8.13, 「한라산을 근거지로 총후에 암약한 사교」에도 유사한 내용(김연일이 사교를 규합하여)이 있다.

66) 안후상은 앞의 논고, 182쪽에서 이를 “민족의식이 강한 육지의 몇몇 승려들이 보천교운동을 이용한 듯하다”고 표현했다. 『사상월보』 2-5(1932.8)의 6~14쪽에서도 김연일이 국권을 회복하고자 선도교도를 ‘선동’하여 대일항쟁을 벌인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항쟁이 마무리 된 후의 종합적인 해석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67) 항쟁 직후, 일제는 선도교도(보천교도)를 항쟁에 관련 있는 대상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하였다. 즉 『증산교사』 60쪽에서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이 ‘보천교도의 所爲라고 혐의하여 엄중하게 조사하던’ 중 云云, 그리고 『동아일보』 1921년 4월 40일자 보도기사에서 ‘무오년 11월에 전남 제주에서 그 교도를 검거하기 시작하여’ 云云이 그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보도기사에서는 “그때는 총독부에서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던 때라 그와 같이 많은 교도가 모이는 것을 정치운동의 음모로 인정하고, 무오년 11월에 전라남도 제주에서 그 교도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목포에까지 검거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나 결국 모두 방면되었고” 라 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보천교, 증산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련 논문을 본 결과, 1918년 법정사 항쟁을 선도교 혹은 보천교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일제가 보천교와 연관이 있는가 하여 교도들을 검거했다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김홍철 논문, 170쪽에 단적으로 나온다.

여하였다면 그에 대한 정황은 어떠한 형태, 기록으로, 구전으로 전하여졌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선도교도는 참가하기는 하였으되, 미약한 형태로 동참한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 적극가담자와 단순가담자를 살펴 보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논리적인 서술은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가 단순하게 보건대 적극가담자는 운동에 동참한 불교신도와 김연일 및 법정사 항쟁의 당위성에 동의하여 항쟁에 참가한 대상자들로 보면 무방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들을 일제강점, 경제침탈에 피해를 보았던 농민들이었다고 본다. 이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10월 7일 항쟁의 대중들이 주재소에서 농민 13명을 구출한 것을 주의깊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껏 연구자들은 이 13명에 대한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구출자에 대한 성격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들이 주재소에 수감되었음은 일제에 대한 저항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13명은 일제의 가혹한 납세에 대한 거부, 혹은 일제식민지 체제에 강력 반발한 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적극가담자가 나온 것은 구금된 13명이 겪었던 고통, 심정을 자신도 겪었음을 은연중 반영하는 것이다. 정구용 판결문에서는 일제측 입장에서 강제성의 징발만을 강조하였지만, 그 반대의 경우 자발적인 동참 농민인 적극가담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쟁의 대오가 300~400여 명, 혹은 7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의 배경이 있었기에 김연일을 비롯한 항쟁의 주동세력이 거사, 무장항쟁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에 항쟁의 준비단계에서도 일제의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았고,<sup>68)</sup> 항쟁 주동자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수년 간 법정사 외곽의 지역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가담자는 항쟁의 대오가 민적부를 활용하여 준 강제적으로 무장대오에 합류케 하였던 농민, 지역주민들이 아니었는가 한다. 항쟁의 대오가 공포를 쏘면서 위협하고, 참가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기고 참여한 대상자들이라고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사 항쟁은 불교계의 승려, 신도들을 기본 축으로 하는 항쟁의 주체세력이 주도하였지만 불교를 신앙하였던 농민들, 그리고 박주석으로 상징되는 선도교도로서의 농민이 동참세력으로 운동의 중추를 점하고 있었다.<sup>69)</sup> 그밖에 적극가담자들은 법정사 인근의 산간지역에서 화전을 하던 농민, 마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중산간 지역에 거주한 비정착 화전민,<sup>70)</sup> 불교신도들이었으며 단순가담자들은 준 강제적, 비자발적으로 대오에 편입된 대상자이었다.

#### 4. 무엇을 : 항쟁의 목적

여기에서는 법정사 항쟁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조금만 유의해서 보면, 일제의 격퇴 및 구축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족운동, 항일운동, 독립운동이었다. 이 같은 개념, 성격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 필자도 이 같은 지금까지의 견해, 연구를 수용한다. 다만 그 연관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핌으

68) 이는 사찰과 신도 간에 끈끈한 결속력이 있었음을 예증한다.

69) 필자의 의견은 불교 중심적인 주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선도교는 박주석을 비롯한 수명만이 참가한 것으로 현재 기록에 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법정사가 민족의식이 충만한 사찰이라는 정체성과 거사를 실질적으로 추진, 준비, 전개한 주체세력의 대부분은 불교 인사라는 점이다.

70) 김창민, 앞의 논문, 2002, 47쪽.

로써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내용, 대상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항일운동의 관점은 다양한 자료에서 천착이 된다. 그는 대부분 제주도에서 일제의 구축을 통한 국권회복 즉,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수괴 김연일은 경북 영일군 출신이면서, 4년 전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법정사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교도에 대하여 반일 사상을 계속 고취시키고자 했다. 대정 7년 9월 19일 구 우란분때 법정사에 모이게 한 교도 30명에 대해,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탄할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한다.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고등경찰요사』)

전라남도 제주도 도순리 한라산 서남쪽 기슭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은 일찍부터 제국정부의 조선통치에 대해 불평을 품어 대정 7년 음력 6, 7월 경부터 수명의 동지와 의논하여 불교도 및 농민을 모아 작당하고 폭행, 위협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내쫓음으로써 제국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일 것을 꾀해 그 절에 모여드는 신도들에게 그 취지를 전달, 가담토록 독촉하던 바(『정구용 판결문』)

김연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제주도에 있는 일본인 관리 및 일본인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정구용 판결문』)

이 기록들에서 필자는 법정사 항쟁이 항일독립운동이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자는 김연일의 항일구국의지가 우연적, 돌발적인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즉 법정사에 거주한 이래 ‘언제나’ 반일 사상을 고취하였다거나, ‘일찍부터’ 일제의 조선통치에 불평을 품었다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제 구축을 발언하였다는 것에서 그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내용은 김연일에 주도된 법정사 항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획, 준비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당시 관련 기록을 보면 그 내용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함께 김연일의 발언에서 불교의 포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적출된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곤혹스럽다. 우선 그 내용을 보자.

검사의 양남구에 대한 신문조서 중, 나는 1918년 음 2월께부터 불교도가 되었는데 그해 8월 15일 법정사에 참배한 남녀 30명쯤이 모여 있었다. 김연일은 모두에게 이번에 불무황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조선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또한 조선을 잘 통치해서 옛날의 독립국으로 만드는데 진력하기로 했으므로 모든 사람은 불무황제의 명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지라 우리들은 찬성했다.(『정구용 판결문』)

김연일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선전도에 불교를 퍼트리고, 선정을 펴기 위해 의군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내지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내쫓으려 한다(『강창규 가출옥 관계서류』)

이 같이 김연일은 항쟁에 참여한 불교신도, 농민들이 중심이 된 대중 즉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들에게 일제 구축, 국권회복과 동시에 불교의 전파를 대등하게 강조하였다. 왜 그랬을까? 필자는 이는 그를 지지하였던 대중, 그리고 그가 동원(참여)시키려는 대중의 상당수가 불교신도였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대중의 결집을 공고히 하고, 불교의 보호 및 발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항쟁임을 홍보함에 있어서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부처님 말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불무황제, 옥황상제로 표현되는 구원주, 메시아가 후원, 유도하는 계시에서 찾고 있다. 이는 정구용이



작성하여 촌락에 배포한 격문에도 나온다.

우리 조선은 일본에 탈취당해 괴로워 하고 있다. 이제야 옥황상제 성덕주인이 나와 이들 조선 인민을 구제토록 명을 받았다.(「정구용 판결문」)

정구용은 모두를 행해 김연일이 황제가 되어 일본인을 추방하여 선정을 베풀 것인데, 김연일은 상제의 가호가 있으므로 반드시 목적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신체 생명에 위험이 없으니 모두 협력하라고 말했다.(「정구용 판결문」)

이렇듯이 김연일과 정구용은 옥황상제, 상제가 나타나 항쟁을 단행하라는 주문을 받았으며, 그 상제가 다름아닌 김연일임을 은연 중 유포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건대 법정사 항쟁은 단순한 항일운동이라기 보다는 종교운동의 성격이 견고하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종교운동이라 함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교적인 방법 및 성격이 관철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종교 변혁운동에는 메시아, 구원주의, 개혁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sup>71)</sup> 이런 사상은 불교의 미륵사상에서도<sup>72)</sup> 나타나고, 선도교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측면과 일제 패망 및 개혁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운동과 종교적 메시아의 도래, 후원이라는 종교운동이 결합되었기에 법정사 항쟁은 더욱 더 탄력을 받았다고 보고자 한다. 요컨대 법정사 항쟁에는 항일 민족운동이라는 목적의 저변에 종교변혁운동도 위치하였던 것이다.

### 5. 어떻게 : 항쟁의 방법

법정사 항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장항쟁으로 전개되었다. 즉 타협적, 온건한 항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운동의 주체들은 왜 그 같은 무장 항쟁을 선택하였는가? 그리고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대중들도 무력적인 방법을 큰 저항 없이 수용하였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것이 여기에서의 초점이다.

김연일을 비롯한 운동의 핵심 주체들은 상당수가 승려였다. 승려라는 성직자가 정상적, 평온한 사회에서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성직자들은 무력을 통한 시비, 갈등이 전개될 때에는 오히려 평화적,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그런데 법정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무장투쟁을 당연시 하고, 일본인 관리와 일본 상인을 무장투쟁의 방법을 통해 제주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혹은 죽여야 한다고 홍보하였다. 실제 항쟁의 전개시에는 일본인을 살상하기도 하였다. 이는 선도교 수령으로 묘사된 박주석의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김연일, 박주석은 제주도에 들어오기 이전에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들이었다. 즉 그들은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을 경험한 당사자였다. 때문에 그들은 무장투쟁의 방법을 당연시 한 체질의 소유자이었다. 그들은 무장투쟁에 대한 방법, 전개 요령, 작전 등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던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둘째는 김연일, 강창규, 박주석, 방동화 등은 일제 당국의 본질,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일제 식민통치의 잔학상, 1910년대 무단통치의 속성을 익히 알고 있었

71) 그 대표적인 것이 천년왕국사상, 이상사회의 도래, 미륵불 및 정도령, 진인과 같은 구세주의 등장이라 하겠다.

72) 불무황제의 하생이 그 정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은의 「미륵과 민중」, 『한국근대 민중종교사상』, 학민사, 1988이 참고된다.

기에 운동의 주도세력은 일제와는 대화, 타협 등 온건한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체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와는 일체의 대화없이 바로, 무장투쟁을 기획, 준비, 전개하였다고 보인다.

이런 바탕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그들이 무장항쟁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리, 일본인 상인 등을 제주도에 내쫓고 제주도 행정 중심처인 제주읍내의 향청으로 진주하여 제주도의 행정, 치안의 권한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육지에서의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었다.

## 6. 왜 : 배경, 요인

그러면, 왜 하필이면 1918년에 항쟁이 일어났는가? 달리 말하자면 항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 종교인의 정체성은 해당 종교 교리 및 사상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구현하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 설 경우 그를 가능하게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도한 종교 조직 및 시설물의 보호, 유지, 확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요청된다. 법정사 항쟁의 주체세력들은 항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불교 및 선도교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일제의 압박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현전하는 여러 기록들에서는 국권회복 및 불교 포교의 지향, 불무황제의 메시지 등이 있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것이다. 항쟁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요인, 단서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미흡하였다. 운동의 주체세력들은 300~700명의 대중이 단결해서 일제를 제주도에 구축할 수 있었다고 정말로 판단하였는가. 육지에서 일제의 경찰, 군인들이 거사의 소식을 듣고 달려올 것이라는 판단은 안하였는가?

필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즉 김연일, 박주석, 강창규 등 민족의식, 항일의식에 투철한 그들은 평소, 제주도로 건너 오기 이전부터 일제에 국권이 강탈당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저항의식은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어서 어떤 좌절, 압박이 있었다 해도 위축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의 종교공간에서 일제의 수탈, 만행 등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함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식, 저항의식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화약과 같은 촉진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촉진 역할을 하였던 요인,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였는가? 이에 대해서도 문헌기록이 부재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건대 그는 1918년 당시 제주도내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18년은 일제가 한국의 농촌(농지)을 장악할 수 있도록 결정적 계기를 준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 되었던 시점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농민들은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던 농토에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지로부터 이탈되고, 삶의 기반을 빼앗겨서 유랑의 길, 이민의 길을 가야만 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에에서도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농민의 분노가 항쟁의 저변에 있었을 것이다. 항쟁에 참여한 농민, 법정사 주위의 농민들은 기존 촌락에서 소외된 주변부 농민이면서, 동시에 유농형 화전민이었음은 경제 피탈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화전민

에게는 조세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말에 접어들면서 화전민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화전농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정착형에서 유랑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화전민들에게 일제가 세금을 강요하고, 세금납부를 하지 못한 대상을 구금한다면 그는 생존을 박탈하는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 화전민, 몰락농민들이 법정사의 불교신도일 경우에는 그는 법정사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산간 중턱에 위치한 법정사의 정황으로 추정하건대 법정사에 왕래하는 신도의 대부분은 농민, 화전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듯 법정사를 유지하는 토대로서의 신도, 법정사 종교활동의 가장 중요한 대상 인물들이 일제에게 강한 압박, 구속을 받는다면 법정사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더욱이 법정사 승려들의 속성, 그리고 법정사 정체성이 민족의식, 저항의식이 충만한 공간인 점을 고려하면 일제의 그 같은 조처는 불에 기름을 붓는 정황이었을 것이다. 앞선 자료에 나오는 항쟁의 대오가 주재소에 갇혀 있었던 농민 13명을 구출하였다는 내용은 이런 구도하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동시에 집회 활동 자체를 규제당하였던 선도교도가 법정사를 왕래하였고, 박주석과 김연일이 친근하였던 연고를 상정하면 법정사와 일제와의 대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법정사 일대의 농민 700여 명이 동참하였다 함은 일제의 경제침탈은 모든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악랄하였음을 예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사가 주도한 대일 항쟁의 비밀이 지켜지고, 항쟁의 선두에 섰던 주체세력들의 운동 참가 권유<sup>73)</sup> 많은 농민들이 쉽게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농민들도 일제와 무력으로 맞서면 죽임까지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상식이었겠지만, 수백 명이 짧은 시간에 무장 대오에 합류하였음은 피탈자, 빼앗긴 자로서의 분노가 그 만큼 상당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정사라는 종교 공간에서 생활하던 항쟁 주체세력들이 전개하는 무장항쟁에 자연스럽게 가담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같은 배경하에서 일제의 경제침탈, 종교 기반을 위축케 하는 억압, 집회의 규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조건이 맞물려서 나온 당시 현실을 무력항쟁으로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법정사 항쟁이었다고 본다. 나아가서 항쟁의 외연을 넓히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일제를 근본적으로 구축하는 항일무장항쟁을 제주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전개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마침내 이런 요인, 배경으로 법정사 항쟁은 가시화 되어, 제주도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침탈, 종교 조직체 수호의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종교인(불교신도, 선도교도 등)을 생존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하는 인권의 문제가 자리잡았던 것이다. 더욱이 그 압박자가 일제라는 야만적, 비인도적, 나라를 강탈한 제국주의일 경우에는 저절로 보편적 민족운동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 III. 법정사 항쟁의 성격 및 의의

본장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갖고 있는 성격 및 역사적 의의를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조망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운동에 갖고 있는 성격 및 의의에 대해서는 일반사 및 지방사의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다할 접근이 미약하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기왕에 검토된 관점들도 적극 고려하면서 한국불교사 차원의 시각

73) 물론 일부에서는 강압, 강제적인 동원이 있었다.

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정사 항일운동은 근대불교사에서 최대의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근대불교사에서 지금껏 불교가 관련된 최대 민족운동은<sup>74)</sup> 3·1운동에 불교 참여를 지칭하였다. 승려였던 한용운, 백용성의 민족대표 참여, 3·1독립선언서에 공약3장 추가, 각처의 사찰에서 만세운동 전개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불교계는 3·1운동의 참가에서 나타난 각성으로 자주적인 종단 설립운동, 사찰령 철폐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는 상해임시정부에 승려들의 참가, 일제와의 투쟁을 다짐한 항일의용승군제 조직 시도, 승려 독립선언서의 제작 및 배포 등이 이어졌다. 이는 모두 3·1운동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평화적, 온건한 투쟁이었으며, 일부는 준비 단계에서 좌절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법정사 항쟁은 처절한 무장항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불교 독립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수백명이라는 동참대중, 총과 곤봉 등 무장을 하였다는 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장 조직체를 구성하였다는 점, 대일항쟁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은 여타의 운동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정사 항쟁은 불교계 최대의 항일무장투쟁의 위상을 담보한다.

둘째, 법정사 항쟁은 현실변혁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근대불교에서 적용된 경우는 유일하다. 한국 고대, 중세기 불교사에서 불교와 연관된 변혁운동은 김사미란, 최충헌정권에게 도전한 승려세력 등등 왕왕 있어 왔지만 근대불교사에서 불교와 연관된 변혁운동은 법정사가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한용운의 영향을 받은 불교청년들이 온건하게, 제도권 불교 내에서 불교대중화를 지향하고, 식민지 불교에 저항을 한 경우로서 1930년대의 卍黨은<sup>75)</sup> 있었다. 그러나 만당은 항일비밀결사체였지만 제도권 불교를 개혁하려는 종교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고, 일제의 감시로 인해 조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그리고 내분으로 인해 스스로 퇴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 말기에 가서는 상당수가 변질된 노선으로 경도되었다. 요컨대 법정사 항쟁은 종교를 통한 변혁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법정사 항쟁에는 한국불교의 주된 사상적 흐름인 大乘佛敎, 菩薩思想이 흐르고 있었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은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원하여, 현재의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려는 불법의 발현이었다.<sup>76)</sup> 다시 말하자면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구현하는 불교이다. 여기에서 하화중생은 자비보살행을 통한 중생구제이다. 自利利他, 同體大悲, 不二的 인식을 수반하는 대승불교는 곧 중생, 중생이 살고 있는 사회, 중생의 삶의 터전인 민족과 국가를 위한 불교 및 승려들의 결단이자 행보이다.

그렇지만 근대 불교사의 경우 승려가 항일독립운동에 나선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佛敎社會化를 고뇌한 흐름은 분명 존재하였지만, 당시 승려들 대부분은 대승불교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다. 일부 수좌계열들은 불조해명의 계승,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 선불교 전통수호 등에만 유의하였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정비, 유지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법정사 항쟁에는 대승불교, 보살사상이 실질적으로 실천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법정사 항쟁이 갖는 불교사적인

74) 줄고, 「일제하 불교계 독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줄고, 「불교의 민족운동」, 『종교계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75) 줄고,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76) 이봉순, 『보살사상 성립사 연구』, 불광출판부, 1998.

안성두, 「대승불교의 이념과 보살사상의 특징」, 『대승불교의 보살』, 씨아이알, 2008.

측면의 위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법정사 항쟁에는 민족불교론의 이념이 구현되어 있었다. 필자는 민족불교론을 기왕의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지칭된 호국불교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대승불교가 근대라는 공간에서 발현된 이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족불교론은 근대불교가 갖고 있는 특성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근대불교가 지향한 노선으로 보고 있다.<sup>77)</sup> 필자가 생각하는 민족불교론은 불교의 보편성(교리, 사상)을 띠고, 근대불교에 부여된 사명(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구현하며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논리, 이념, 실천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민족불교론은 불교의 교리 및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대승불교의 근대적 변용을 실천하며,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으려는 근대 불교도들의 정체성 재정비의 산물로 주장한 바가 있다.<sup>78)</sup> 이런 전제하에 법정사 항쟁에는 민족불교론이 관통하고 있었다고 본다.

다섯째, 법정사 항쟁에는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정신이 구현되었다고 본다. 그 단적인 예가 민족운동을 상징하는 3·1운동의 정신이 법정사 항쟁에 나온다는 것이다. 3·1운동은 1919년 3·1운동은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 남녀노소, 직업, 종교를 떠난 민족 전체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이 같은 3·1운동을 추진하였던 3·1정신은 민족운동의 전형으로 현재까지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3·1정신이 3·1운동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제주도, 법정사, 중문지역에서 이미 前史의 성격을 갖고 예비적으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법정사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승려, 신도, 선도교 간부, 선도교도, 농민, 화전민, 촌락민 등이 모두 일체가 되어 일체와 투쟁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3·1정신이였다.

이런 성격은 일제하 불교민족운동이 3·1운동의 계기성으로만 이해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에 재해석을 기할 수 있는 단서이다. 예컨대 의병항쟁에 참여한 승려들을 전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껏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지만 이에 관련된 자료수집이 요청된다. 그리고 이는 기존 근대불교를 친일불교로 보려고 하였던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 시각도 재고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사 항쟁은 개항기 및 1910년대 불교사를 일체에 대한 우호, 협조라는 기본 흐름과 불교 발전을 위해 일본불교를 모방하였다는 기존 해석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호국불교의 전통의 발현으로서의 성격이 나왔던 것이다.

지금껏 필자가 고려하고 있는 법정사 항일운동을 불교사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격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일제하 불교 민족운동사에서 구현시키고, 나아가서는 불교의 사상 및 문화의 관점에서도 탐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맺는말은 법정사 항쟁에 대한 추후의 연구 전망, 혹은 연구에 필요한 제언 등을 피력하는 것으로 대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 의견 개진이 추후 법정사 항쟁 연구에 수용, 검토,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첫째, 법정사 항쟁의 연구는 이제 1단계를 마감, 정리하는 수준에 다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한계, 미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성찰하는 자리, 계기가 더욱 수

77) 이에 대해서는 줄고,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참조.

78) 위의 책, 83쪽.

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법정사 항쟁에 대한 문헌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발굴, 정리된 것만 해도 책으로 묶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다. 자료집이 간행되어야 더욱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항쟁에 연관된 구술사 자료집을 만들 수 있는 증언 청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항쟁에 대한 유족, 동리 주민, 후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듣고, 그를 정리 분석하여 연구자료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넷째, 제주도 내에서 관련 기관, 유족회 등이 상의하여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상설 조직체를 구성, 발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문청년회의소, 기념사업회, 서귀포시청, 제주 보훈지청, 제주학회 등 다양한 연고처에서 주관, 진행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주제의 일관성 미비, 연구자의 협소성 등을 야기하였다.

다섯째, 연구를 이제 보다 넓은 시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비교사 관점도 채택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제주도사, 한국불교사에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문화, 생활 등의 미시사, 문화사와 같은 새로운 관점 개발이 요망된다고 본다. 특히 한국 근대불교사 이해에 있어서 친일불교에 대한 과도한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나친 호국불교의 관점도 문제이지만 자학적인 불교관도 성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법정사 항쟁에 대한 연구 환경의 진작, 연구 무대의 개선, 자료집 발간의 긴급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제안이 신중하게 검토, 수용되길 기대한다. 필자의 지적이 이 분야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면서 동시에 후학들의 연구에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논문투고일: 4월 8일, 심사일: 5월 13일, 게재확정일: 6월 8일

주제어: 법정사 항일운동, 법정사, 민족불교, 호국불교, 보천교, 제주 근대 불교, 불교계 민족의식.

■ 참고문헌

- 김광식, 「해방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11, 2008.
- \_\_\_\_\_,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 \_\_\_\_\_, 『용성』, 민족사, 1999.
- \_\_\_\_\_, 『근현대 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 \_\_\_\_\_, 『한용운 평전, 첫키스로 만해를 만난다』, 장승, 2004.
- \_\_\_\_\_,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 \_\_\_\_\_, 『춘성』, 새싹, 2009.
- 김동진,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성과 항쟁지의 활용방안」, 『서귀포문화』 6, 2002.
-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1995.
-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 \_\_\_\_\_,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2002.
- 김순석, 「한국 근대불교계의 민족의식」, 『불교학연구』 21, 2008.
- 김종만,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불교평론』 2권 2호, 2000.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주도연구』 25, 2004.
- 박노자,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불교」, 『불교평론』 28.29합호, 2006.
- 박결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1996.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 \_\_\_\_\_, 「근대 제주불교 동향과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위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세미나 자료집』, 2007.
- 이정립, 『증산교사』 증산교본부, 1977.
- 이치근,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서귀포시』 7, 1997.
-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서귀포시』 5, 1996.
- \_\_\_\_\_, 「제주도 법정사 승려들의 항일무장투쟁」,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 윤봉택,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 『서귀포문화』 6, 2002.
- 조성윤, 「무오년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주도연구』 25, 2004.
- 정공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32, 2005.
-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 성주현, 「1920년대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대각사상』 9, 2006.
- \_\_\_\_\_,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토학연구』 10, 2007.
- 대구복심법원, 「정구용판결문」 1923.6.29.
- 목포형무소,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1928.12.12.
-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제주도, 『제주도지』, 1993.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K C I



■ 국문요약

## 법정사 항일운동의 불교사적 의의

### 2.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서귀포 중문지역에서 승려, 불교신자, 지역농민 등이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다. 이 항쟁은 법정사라는 사찰을 거점으로 하여, 법정사에 거주하거나 혹은 법정사와 연고가 있는 승려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새로운 자료발굴과 함께 역사, 지방사, 인류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정한 연구가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존연구는 미시적인 접근과 편향적 이해에 머물러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나 평가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을 6차 원칙에서 총체적인 정리를 시도하고, 나아가 법정사 항일운동에 나타난 불교적 이념이나 사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총체적인 이해와 관련해서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난 시점 및 기간, 장소, 항쟁의 주체, 항쟁의 목적, 항쟁의 방법, 항쟁의 원인의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라는 사찰을 근거지로 하여, 김연일(법정사 주지), 강창규, 방동화와 같이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박처사로 대표되는 보천교(선도교)가 동조하고 법정사 주변의 불교신도들인 농민들과 화진민들이 참여한 불교계의 항쟁임을 밝혔다. 나아가 항쟁의 목적에서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국권회복과 더불어 종교적 메시아의 도래, 불교의 포교가 공존하는, 즉 항일 민족운동과 종교를 통한 사회의 변혁을 지향했던 운동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편 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계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저항의 방법으로 택함으로써 기존의 불교계의 항일운동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항쟁은 1918년 10월에 일어났는데, 이 시기는 일제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한국의 농촌을 장악한 시기이기도 했다. 토지조사사업은 법정사 주변의 대부분의 신도들의 생활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일제의 이러한 수탈은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저항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상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법정사 운동이 중생과 사회, 구체적으로는 중생의 삶의 터전인 민족과 국가를 보전하기 위한 대승불교의 실천운동임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정사 항쟁에는 근대불교가 지향했던 민족불교론의 이념이 구현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법정사 운동에 담겨있는 불교사상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진일보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정사 항일운동은 그간의 근대불교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케 할 여지가 다분하다. 즉 친일불교로 단정하였던 연구 경향을 성찰케 하고, 1910년대 불교사의 흐름의 다양성, 호국불교의 재검토 등이 그것이다. 추후에는 여기에서 나타난 특성을 근대 불교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The Buddhist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Kim, Gwang-sik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hich was occurred at Seoguipo and Jungmun regions in Jeju Island on October 7th, in 1918 was an Anti-Japanese Movement with armaments that monks, lay buddhists and regional farmers etc led and evolved. It is important that this resistance was led by monks who lived or related to Bupjeongsa in the modern buddhist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position of Bupjeongsa in a buddhist temple. Recently the results of history, local history, anthropology, sociology, law etc. and various fields with new materials which were excavated studies on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has been developed. But the existing study was in lack of macroscopic and total approach and valuation because of staying at microscopic approach and prejudiced understanding. However I tried the whole arrangement that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six principles in acceptance of the results for the existing study and further made buddhist idea and thought clear being appeared on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At first I looked into the point of time when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hat was occurred and period, place, the main body of resistance, purpose of resistance, the way of resistance, the cause of resistance in dividing them into six items in relation to the whole understanding. Through this I made the buddhist resistance clear that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as taken part in centering around monks such as Kim Il-yeon(abbot of the Bupjeong Temple), Kang Chang-gyu, Bang Dong-hwa and supported in representative of Bocheongyo(Seondogyo) as a layman Park retired gentleman and farmers and slash-and-burn farmers around the Bupjeong Temple in a base on the Bupjeong Temple. Further on the purpose of resistance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as recovering National Right and arrival of the Messiah and co-existing buddhist propagation namely, I looked into the movement which intended to social change through Anti-Japanese resistance National movement and religion. On the other hand,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is in spite of the buddhist movement it is shown to be different from the exiting Anti-Japanese movements in the buddhist field in choosing the force as an away of resistance.

The resistance was occurred on October in 1918. That period was the time to hold

the farming village in Korea after being ended the project of the land examine in Korea by the Japanese Empire. The project of the land examine brought the result that it deprive farmers of their ground of the living. The Japanese Empire's such plundering became a catalyzer's role for the resistance of the farmers centering around the Bupjeong Temple. The study trough the above whole analyzing, I proved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as practical movement of the Mahayana Buddhism in order to preserve People and Nation where it is all living beings and society, in detail all living beings ground of the living.

Finally there is embodied the idea of the national buddhist theory that the modern buddhism intended among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I think that these discussions are meaningful for one more step from the former research as examining buddhist thoughts what the Bupjeong Temple's Anti-Japanese Movement was included closely.

Key word : the Bupjeong Temple. The Buddhist Independent Movement, the Bupjeong Temple Resistance, Mahayana Buddhism, National Buddhism, national consciousness Temple, korean Buddhist Theism.